

정론

위대한 우리 조국 만만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하여

광대한 지구위에 우리 조국이 또 한번 눈부시게 솟아올랐다.

주제 106(2017)년 7월 4일, 바로 이날 오전 9시 우리 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은 감상이 말그대로 기대한 격정과 환희의 용암이다.

집집에서, 초소와 일터들에서, 다수 화을 향해 내달리는 청년전야들과 수천 척지하락에서까지 울리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조국강산을 진감한다.

아마도 지금까지도 그렇듯 많은 사람들이 커리로 달려나와 경곡의 노래를 부르며 울며 웃고 있을 것이다. 경사면 이보다 더 큰 경사, 기쁨이 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강국의 공민인 자부심이 하늘까지 높이 치솟는 향으로 눈물겹도록 감격적인 인민의 경사, 인민의 명절이다.

서리발흥경을 틀어놓고 한밤을 지새는 전조기의 병사들과 지역자강의 마치고 부강조국건설의 피성을 높이 울려가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승기를 지혜로 현수들의 아담적인 제제에 과련자를 내며 조국의 보옥에 만리마의 내배를 맡아주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조국방 곳곳에 펼쳐진 거대한 창조전진의 위훈자들이 오늘 의 특대사변에 접하여 격정의 만세, 만만세를 부르며 또 부른다.

세계를 진동케 한 지하핵실험의 성공과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소식들, 우리 식의 위대한 주제무기들의 타발적이고도 만발적인 시험성공들을 비롯하여 우리가 만세를 위해 쫓아낸 사변들은 참으로 많다. 하지만 어이하여 오늘의 승리는 이처럼 천만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것인가.

남다른 카림함이 이 땅의 인민이라면 누구나 눈물을 흘리고 격정의 환호를 우렁차게 터뜨리며 그리도 승리의 희열에 가슴찡하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군력이지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강성국가 있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도 있습니다.》

국가력무력한성을 위한 최후관공인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의 타격성공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의 기지파라 비상히 빠른 속도로 강화발전 주체조선의 불패의 국력과 무적막강한 자립적국방공업의 위력에 대한 절대 시위이며 세계를 두고 강력한 국방력을 감당해온 우리 공화국의 역사가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으로 된다.

인류마다 세기를 두고 갈망하는 나뭇가지의 소원이 있다.

우리 민족의 사무치는 념원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바로 강위력한 국방력이었다.

돌이켜보면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인것은 미국만이 아니었다. 지난 한 세기전 프랑스의 한 만화가는 다리에 면이 있는 《조선》이라는 물고기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낚시줄을 드리우고 있는 한강의 그림으로 당시 열강들의 각축전야당으로 되었던 조선을 묘사하였다.

조선을 탐내는 주변대국들이 우리 나라를 제마끔 자기 수중에 장악하려고 평발을 벌리던것이 지난 세기의 일이다. 《시일아방성대국》으로 가슴을 쥐어뜯어 보고 국제회의장에서 배를 가르면서까지 항거해나섰으나 우리 인민에게 차대것은 망국이었다고 식인지 노래의 피눈물이었다. 우리 민족이 강요당한 사대와 망국의 역사는 본질에 있어서 자기들 지킬 힘이 약했던탓에 겪은 약소국의 수난사였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제네의 눈물을 뒤야 하는 시대, 이것은 결코 화려한 역사의 추억만이 아니다.

오늘의 세계는 또 어떤가. 우리는 보고있다.

침략적인 외세가 마구 달려들면 미제일들과 총포탄에 때려져 버려진 고향과 집을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떠다니는 전사대의 비극-피난민사태들.

자기들 지킬 힘이 없으면 외세의 총탄들이 되고 이러 쫓기고 쫓기 쫓기 유는 비참한 수난자의 운명을 강요당해야 하는것이 지난날과 조국도 다름없는 오늘날의 세계이다. 핵을 가진 몇몇 나라들이 핵을 가지지 못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마음대로 짓누르며 진침과 강권을 일삼는것이 미제를 비롯한 열강들이 세워놓은 부정의의 《국제질서》이다.

하나이제는 아니다. 드디어 이 형성에 부정의의 폭제를 끝낼것을 위한 힘을 가진 강대한 민족이 출현한 것이다.

사태를 《민족보존의 무기》로 삼아 온 민족의 수난사를 끝내고 자주로 빛나고 선군으로 위대한 민족의 새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며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우리의 눈앞에 조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승리가 강산을 진감하면 그 날 몸소 꽃다발을 안고 민수대연으로 오르신것을 생각해본다면 수령님의 영상이 가슴뜨겁게 떠오른다.

이 나라 인민의 다짐없는 감사의 정이 천만군의 푸게로 삼기 싶었던 꽃다발이었다. 한평생의 모든것을 다 바쳐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운명수호의 길에 불멸의 영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인민들께 드린 다짐없는 경의였다. 어찌 잊을수 있으랴.

병진의 길, 세계가 알지 못하는 이 독립적인 길을 제시하시고 조국과 민족을 이끌어 국력강화의 길을 역력같이 걸어오신 우리 수령님, 그 누가 내 마음 몰라봐도 몰라봐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시련의 사산천리를 일강에서 쳐죽이고 우리 장군님께 대한 헌없는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든다.

진정 우리 수령님들께서 열어주시고 이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그 길이 있어 오늘 우리 가 오를 눈부신 승리의 언덕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

이로써 우리 조국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강국으로 세계의 면전에 눈부시게 솟아올랐다.

진중의 방위양이 땅에 승리의 환호성이 진감한다.

그것은 현수의 아성에 울리는 처절한 비명소리를 얼마나 통쾌하게 싣고있는것인가.

《힘의 만능》을 떠받치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알았으며 미제일들이 간악한 현수들이 눈앞에 위엄을 떨치는 모습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임단 범어지던 《선제타격》을 떠받치고 힘에 의한 압박을 받던 현수들에게 준현한 정벌의 선고를 내린 조선의 7월 4일이야!

이제는 조선의 전략적지위가 세계적국력의 전열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의 핵전쟁위협공격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고 우리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상상

한 변영의 데로가 더욱 눈부시게 펼쳐지게 되었다.

세계를 변화시킨 10가지 발명이요 사변이요 하는것들이 오늘날 인라네트에는 끝날 오른다. 하지만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절대병기》와 함께 조선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로켓 그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그 어떤 특대발명보다도 견줄수 없을만큼 위대한 것이다.

제국주의반동들이 세계의 민심을 기만하고 헐뜯으면서 불의의 속으로 돌리려던 지구는 이제 이 우주에 없다.

넓고넓은 이 행성의 역사는 2017년 7월 4일부터 새로운 자전을 시작하였다. 그 중심에는 조선이 있고 인민들의 쾌도는 자주의 속을 따라 그려지고있다.

7월의 대승리, 새길수록 마음후덜덜.

1953년 7.27의 승리가 미제를 사산천리의 시초에 몰아넣은 역사의 폐기였다면 오늘의 7월의 사변은 미제를 영원한 멸망의 나락에 치락은 최후승리의 대사면이다.

조선의 7월에 우리 민족이 또다시 맞이한 특대사변, 이는 진정 태를 이어 수령님, 장군님을 누리는 우리 민족의 행운을 얼마나 가슴부들게 새겨주고있는것인가.

승리는 환한다고 지나가는것이 결코 아니다. 위대한 장군을 모신 민족만이 누릴수 있는 행운이고 공제이다.

어이하여 승리의 환호성은 강산을 진감하여도 인민의 마음은 평이히 후다워도드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 조국과 새 세계를 열것같이 격동시켜 주었는지 모르겠다.

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감격의 눈물속에 우리드고 또 우리드는 위대한 영상, 기쁨속에, 눈물속에 울음이 달라가 안기는 위대한 품이 있었나 아, 조선민족의 위대한 은인이시고 운명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오늘의 대적적, 대승리를 안아오시느라 우리 현수님께서 바치신 천만노고와 수없이 걸으신 고통의 길 열 마였으랴.

돌이켜보면 우리 인민들은 항상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행성을 휘흔드는 민족사적사변들을 기쁨속에 접하였다.

인민은 행복의 길만 걷게 하고 자신의 고통길은 철대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남모르게

걸으신 최선길은 맞힌것만이었는지 새우신 현신의 그 밤은 얼마였으며 하루빨리 우리 인민에게 기본 소식을 전하자고 뚫으신 맘은 또 얼마였으랴.

그 나날속에는 깊은 밤, 이른 새벽도 가리치 않았고 시험발사장을 찾으신면 멀고 험한 길도 있고 미더운 국방과학자들과 함께 동리오는 새날을 맞으시던 무수한 아침도 있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을 흥대로 기어이 완성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동맹계급의 어깨에 실려있었고, 주제혁명위원의 영광찬란한 앞길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믿음과 용기를 주시던 절절한 당부의 시각도 있었다.

우리 인민은 오늘도 잊지 못한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미사일탄도로켓 《화성-12》형시험발사성공의 소식이 전해진 그날 우리 현수님께서 국방과학자들과 함께 찍으셨던 기념사진에서 어려운이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진하십시오!》, 《김정은장군 만만세!》이다.

우리 현수님이시어발로 이 세상 어떤 강적도 위락파락하지는 한아 무적의 명장,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오직 승리의 상승궤도만 보란듯이 치달아오르게 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바탕으로 굳게 붙어선 일심단결의 힘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천군만군의 역군이 과도 처럼 밀려온다 해도 주주의 흔들림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특대사변과 더불어 현민의 심장에 더욱 크게 어지는 확신이고 신념이다.

현단의 심장 활화산의 용암처럼 라면진다.

우리의 백승의 기치이시고 강대한 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한바탕으로 굳게 붙어선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절당한 사상과 신념이 있는 한 우리는 행성의 가장 대적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만 국방과학사들처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위하여 전진하십시오!를 외치며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굴함없이 힘차게 뛰어나갈것이다.

현단군인이여, 천백배로 억세어진 승리의 신심으로 최후승리를 향한 만리마태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자.

승리의 신심은 더 위대한 승리를 낳는 법이다.

우리 또다시 뜨겁게 되새겨보는 이태의 3월 18일,

새로 개발한 우리 식의 대륙발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될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심신을 다 바치며 고심이던 연구사들을 불러온 국방과학자, 기술사들을 엄숙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며 전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던 그날,

로켓공정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리뽑고 명실공히 개발성조형 공업으로 확고히 전진된 주제적인 로켓공정부의 새로운 단성을 선포한 민족사적의를 가지는 대사면이라고 그리도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우리 현수님,

우리가 오늘의 이 승리, 하늘땅을 진감하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의 만 세소리에 고통치는 전리는 바로 《김정은장군 만만세!》이다.

우리 현수님이시어발로 이 세상 어떤 강적도 위락파락하지는 한아 무적의 명장,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계시는 한 우리는 오직 승리의 상승궤도만 보란듯이 치달아오르게 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바탕으로 굳게 붙어선 일심단결의 힘이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천군만군의 역군이 과도 처럼 밀려온다 해도 주주의 흔들림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특대사변과 더불어 현민의 심장에 더욱 크게 어지는 확신이고 신념이다.

현단의 심장 활화산의 용암처럼 라면진다.

우리의 백승의 기치이시고 강대한 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한바탕으로 굳게 붙어선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절당한 사상과 신념이 있는 한 우리는 행성의 가장 대적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만 국방과학사들처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위하여 전진하십시오!를 외치며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굴함없이 힘차게 뛰어나갈것이다.

현단군인이여, 천백배로 억세어진 승리의 신심으로 최후승리를 향한 만리마태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자.

승리의 신심은 더 위대한 승리를 낳는 법이다.

강산을 진감하는 환희와 격정으로 최후승리를 향한 만리마태진군의 발 구름소리 더 우렁차게 울려가자.

오늘 우리 혁명의 2대전선은 군수공업과 정공업이다.

정공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여, 군수공업부문에서 다발적으로, 만발적으로 울리는 요란한 승진 포성이 화하여 정공업전선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의 우렁찬 승진포성을 높이 울려라.

《정말 힘이 넘니다. 국방과학자들의 투쟁정신과 기상을 본받아 우리의 농업전선에서도 기어이 다수확장공을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열두삼천리밭 농업근로자들의 맹세단이다. 오늘의 대승리에 고무된 우리 농업전선의 떠버려진 기상이고 의지이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앞으로!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계속전진, 계속전군하는것은 백두의 공적정신으로 만장약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본래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현수님 계시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믿을의 신심에 넘쳐 더 용기때려, 기세충전하여 만리마태진군의 주로를 힘차게 내달리자.

지역자강의 기치를 더 높이 들자. 현수들의 미친듯 한 제제와 봉애속에서도 우리의 사상과 신념, 두뇌와 승기를 기어이 국가력무력한성의 최후관공인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서 성공한 국방과학자, 기술사들처럼 지역자강만이 살길이라는 철의 신념을 만장약하고 조국방 어디서나 승리의 피성을 더 높이 울려라.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한바탕으로 굳게 붙어선 일심단결이 있고 가장 절당한 사상과 신념이 있는 한 우리는 행성의 가장 대적사를 기어이 안아오고야만 국방과학사들처럼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위하여 전진하십시오!를 외치며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굴함없이 힘차게 뛰어나갈것이다.

현단군인이여, 천백배로 억세어진 승리의 신심으로 최후승리를 향한 만리마태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치자.

승리의 신심은 더 위대한 승리를 낳는 법이다.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시험발사성공소식에 접하고 기쁨과 환희로 들끓는 수도시민들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세진문농장에서-

- 과학기술전당에서 -

- 대안중기계현합기업소에서 -

- 신계군 구락동농장에서 -

- 희산시에서 -

- 평양역앞에서 -

본사기자 찍음